

하늘을 향해 두둥실 떠가는 오색의 풍선처럼
새해의 시작은 언제나 설렘과 함께 시작됩니다.
 새로운 2014년,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득 담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소망풍선을 띄웁니다.
 생활 가까이 다가가는 정책, 현장중심의 활동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국민 권익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공민’

국민권의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꿈.
국민 행복 실현이라는
꿈과 희망을 가득 담아
파란 하늘을 향해
소망풍선을 두둥실 띄웁니다.

용기있는 복지부정 신고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가 함께합니다



정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운영기간** 2013. 12. 10.~ 2014. 3. 19.(100일)
- ✓ **신고대상**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지원금, 인적·물적 지원 등 일체)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
- ✓ **신고상담** 전국 국번 없이 ☎ 110
- ✓ **신고접수**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4대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적 부조 부정수급
 - 그 밖에 복지사업, 시설보조금·지원금, 인적·물적 복지서비스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보조금의 부정수급, 횡령, 예산낭비 등
- ✓ **신고자 예우**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4 01+02 vol.36

발행일 2014년 2월 17일(격월간, 비매품)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이성보
편집인 이충호 주소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전화 02,360,2761 팩스 02,360,3520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이팝 02,514,7567 www.eepop.co.kr

CONTENTS



● 테마기획 - 2014 권익위가 띄우는 소망풍선

- 04 테마 인터뷰 _ 이성보 위원장 신년 인터뷰
- 08 테마 포커스 _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 12 테마 카툰 _ 정부대표 단일번호(110) 운영

○ 희망전하기

- 14 국민권의 이야기 _ 애국지사 향산 구익균 선생 행정심판
- 18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_ 새만금 조정으로 보는 국책사업 갈등해결 방안
- 20 소통의 창 _ 독자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
- 22 국민행복제안센터 _ 우체국 간 온라인 송금 수수료 전액 면제

○ 권익더하기

- 24 국민권이 간다 _ 충남지역 이동신문고 현장
- 28 글로벌 ACRC _ 2014년 권익위 국제협력 활동계획
- 30 국민권의 Q&A _ 주요 국민권의 개선사례
- 32 110 행복레시피 _ 힘든 사람들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기를

○ 행복나누기

- 34 타박타박 힐링여행 _ 부여 민칠식 고택
- 38 감성충전소 _ 뮤지컬 <위키드>
- 40 스포츠 인사이트 _ 소치동계올림픽 피겨 100배 즐기기
- 42 건강 다이어리 _ 건강 찾는 똑똑한 채소 섭취법
- 44 청렴 오디세이 _ 정보공개 아버지, 안데르스 쉬데니우스
- 46 꼭 알아두세요! _ 스마트 안전귀가 앱
- 48 뉴스&피플 _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시무식 개최 외
- 50 행복우체통 _ 독자자연&퀴즈



글 편집실 사진 이동진 다부 스튜디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권익위 업무는 제2의 소명... 반부패·국민권익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사, 국민권익의 수호자로 나선다.’ 2012년 12월 이성보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수장으로 취임할 때 언론은 ‘약자보호 판사’로 이름 높은 그의 경력에 주목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성보 위원장은 직접 민생현장에 나가 국민의 편에 서서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 척결에 앞장서는 ‘국민권익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했다. 지금은 ‘권익위 업무는 제2의 소명’이라고 말하는 이성보 위원장에게 그간의 소회와 활동,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Q 취임하신지 만 1년 하기도 1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사법부에서 30년 가까이 봉직하다 행정부로 오셨는데, 그동안의 소회가 궁금합니다.

제가 2012년 12월 10일 퇴직하고, 그 다음날 바로 권익위로 출근해서 처음에는 실감이 잘 안나더군요. 30년 가까이 익숙하던 출근길을 벗어나서 하루아침에 전혀 새로운 곳으로 온 거니까요. 생활 자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소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장 때와는 달리 국회에 출석할 일도 잦고, 이동신문이나 현장조정 등 한 달에 한 번은 지방에 내려가고 해외출장도 갑니다. 연말에 가족들과 오붓하게 새해를 맞는 대신 국회에서 새해를 맞은 게 벌써 두 번째이기도 하고요. 오랜 사법부 생활에서

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자극을 받고 있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에서 일하다보니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일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Q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결정을 하신 건데요, 권익위 위원장직을 맡기로 결정하신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 법관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공직생활도 사법부에서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상치 못했던 기회가 주어져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제 아내가 적극적으로 응원해 줬습니다. 아내는 제가 판사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늘 자랑스러워 했었는데, 전혀 다른 분야의 일에 선

뜻 ‘해보라’고 하니 마음이 기울더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도와주는 일은 법관 시절이나 지금이나 같으니 같은 일을 하는 셈이지요. 권익위원장 업무 수행에 판사 경력이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권익위원장 업무를 제2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정부 출범 1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과 중에서 대표적인 정책이나 사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권익위원장으로 부임하여 권익보호 정책을 역동적으로 펼친 첫 해였습니다.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을 수립하였고, 신속하고 폭넓은 권익구제 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충 민원 인용률은 2011년 15%에서 2013년 18%로 상승했고, 고충 민원 만족도도 2013년 75.6점을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노력한 결과 ‘새만금 송전선로 설치 반대’ 등 집단갈등 민원 43건을 현장조정으로 해결했으며, ‘산재 후유증상 진료비 부담’, ‘군부대 이전을 통한 방화대로 개설’ 등 대형 갈등과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또 국민행복 제안센터,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등 국민소통 인프라를 통해 국민의 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패관행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태지역 반부패기관장 회의



재래시장 방문

안」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국가 복지재정 누수에 적극 대처하는 등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구제를 확대해 2만 4,405건의 행정심판을 처리했으며 취약분야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6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Q 현 정부의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화두는 '비정상적 정상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권익위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비정상적인 관행은 사실 부패문제와 직접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올해 부패방지 업무에 보다 역점을 두고 비정상적 정상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각지대인 공직유관단체들을 중심으로 방만 경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고쳐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부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패를 저지르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국가에 재정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 일정 배수 이상을 징벌로 환수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해결에 권익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크게 두 가지 부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 합니다. 우선, 권익위로 접수되는 집단민원을 위원회 조정기능을 통해 가능한 많이 그리고 조기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밀양 송전탑'이나 '제주 강정마을' 갈등처럼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기 전에 예방하는 일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미 '새만금 송전선로' 등 크고 작은 갈등민원을 매년 40건 이상 해결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집단 갈등민원 조정에 더욱 힘을 쏟아서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또한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갈등민원에 대해서는 국조실, 관계부처 등 정부간 협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갈등민원 조정팀 신설, 집단갈등 조정 관련 법적근거 보완 등을 통해 갈등조정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만들 계획입니다.

Q 지금까지 하신 일도 많고, 앞으로 추진하실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일을 하시려면 건강은 물론 평소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실텐데요, 특별히 즐기는 취미가 있으신지요.

20년 동안 꾸준히 헬스클럽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돼서 아침에는 무조건 일어나는데, 전날 아무리 늦게 끝나고 피곤해도 한바탕 땀 흘리고 나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즐기는 편이라 개인적으로 영화 컬렉션을 갖추고 있고, 특히 클래식 음악을 좋아합니다. 집무실에도 항상 틀어놓고 듣고, 관련 강좌도 직접 찾아가 들곤 하죠. 보통 이런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고가의 장비를 갖고 싶어 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들 하는데, 저는 장비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집무실에서도 그냥 컴퓨터로 음악을 편하게 듣는 편입니다.

Q 취미활동이 업무와 연결되는 경우도 많던데요, 위원장님은 어떠신지요.

저는 지휘자의 역할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권익위는 2008년 3개 위원회를 합친 조직입니다. 클래식 음악에 비유하자면 서로 다른 악기가 모여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와 같죠. 그 오케스트라를 잘 훈련시켜 실제 연주회에서 100% 기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휘자의 역할입니다. 저는 구성원들과 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지휘자가 되고 싶습니다. 드라마를 잘 안보는 편이지만, 음악과 연관이 있는 <베토벤 바 이리스>를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강마에가 카리스마 강한 지휘자로 나오는데, 사실 알고보면 그 뒤에는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있지 않습니까. 위엄만 강조하면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하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없죠. 진심으로 대하면 모두에게 내 진정성이 전달되고, 함께 좋은 하모니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권익위를 이끌어가는 지휘자로서 구성원들과 어떻게 소통해 나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국민 행복을 위해 일하려면 먼저 우리 조직부터 유쾌하고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권익위 구성원들 자체가 서로 어울리거나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업무도 실국별로 분리되어 있고, 본관과 별관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특별한 외부행사가 없으면 직원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동호회 모임 등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직원들과의 소통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Q 새해를 맞아 위원장님의 각오, 또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권익위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알리는 한편,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발굴하는데 지혜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권익위에 오는 민원들은 해당 부처에서도 해결이 안 되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는 현행 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되지 않아서 권익위를 찾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해결을 위해 노력해보고, 해결이 어렵다면 납득이 가도록 설득하는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국민의 생생한 소리를 듣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나아가 모든 업무의 중심을 국민에 두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신뢰받는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테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〆〆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국민의 생생한 소리를 듣는데 앞장서겠습니다
〆〆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행복한 국민, 깨끗한 정부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심 없이 달려왔다. 2014년을 시작하며 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체되어 있는 공직사회 청렴수준의 획기적 향상,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적 갈등이나 집단 민원의 선제적 해결, 부패와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행복한 국민, 깨끗한 정부'를 열어갈 권익위의 주요 정책을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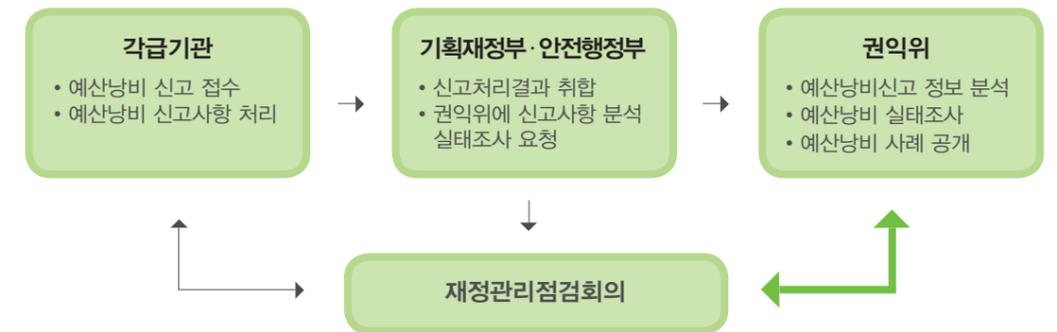
부패 공직자 OUT!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바로 세운다

권익위는 먼저 부패공직자 DB를 활용해서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정부위에 상정되어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권익위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1,183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패공직자 DB를 분석해서 기관별 처벌 수준 등 징계적정성을 공개함으로써 부패행위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2012년 1월 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서 '금품수수 위반 징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부패의 징계감경 금지, 중징계 의결 중인 경우 의원면직 제한, 모든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기준 강화 등이 핵심적인 신상필벌 원칙이다. 한편 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을 강화해 위로부터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교육도 50개 학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낭비 NO! 촘촘한 감시·환수시스템 만든다

복지예산의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 시스템을 법제화한다. 허위·부정청구 시에는 공공기관에 발생한 직접손해 비용을 전액 환수하거나 2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징수하는 징벌환수제를 도입하고,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고, 일정액 이상 부정청구 시 고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은 권익위법을 개정하거나 환수에 대한 별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또 권익위에 설치·운영 중인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고, 개별 관리되던 예산낭비 신고정보를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와 협업을 통해 범정부적인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예산낭비 신고 정보 활용





2014년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의례 중인 참석자들

‘비정상의 정상화’ 위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은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제·개정 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조리 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국무조정실과 협업으로 대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상화 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토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 중점추진 정상화 과제

부패 취약 분야	민생부조리	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예산낭비·누수	지자체 선심성 사업
	감독사각지대	해외원조사업 관리 등
고충 민원 빈발 분야	손톱 밑 가시	비정규직 근로환경
	미래산업관리	쇼핑몰 이용자 보호
	국민안전분야	청소년 수련시설 위생 등

늘어나는 집단갈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100인 이상 집단민원 집중관리,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도입으로 사회갈등을 조기에 예방하는 활동도 강화한다. 집단갈

등이 예상되는 민원사안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운영, 집단민원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갈등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일정기간 지속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 ‘관심-유의-경보’의 3단계로 알려주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도입해 민원 확산을 예방하기로 했다. 주요관리 대상은 140개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5대 불안요소 및 4대약 등 주요 사회 이슈로, 민원의 규모와 지속기간·추세를 고려해 관리할 계획이다.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2014년에도 행복한 국민,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부패공직자 DB를 활용하여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부패행위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 확립

- ✓ 부패공직자 정보(1,183개 기관)의 과학적 분석
- ✓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금지 등 제재 강화



우리사회 곳곳으로 청렴문화 확산

-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10회 500명)
- ✓ 초·중·고교 ‘찾아가는 청렴교실’ 운영 (50개 학교)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한 감시·환수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부정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시스템 마련

- ✓ 공공기관 발생 손해 전액환수 및 징벌환수제(2~5배) 도입
- ✓ 위반자 명단 공표, 일정액 이상 부정청구 고발 의무화



범정부 공동 대응체계 구축

- ✓ 예산낭비신고정보(연간 약 3천여건)의 공동 분석·활용
- ✓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운영

국민의 ‘정상화’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부처간 협업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개선

- ✓ 과제발굴시 국민아이디어 적극 반영
- ✓ 공공분야 부패관행, 민생불편요인 집중 발굴 개선



공공기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지원

- ✓ 공공기관 방만경영실태 집중 점검·개선
- ✓ 공공기관(약 230개)에 특화된 청렴도 측정 강화

100인 이상 집단민원 집중관리,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도입으로 사회갈등을 조기에 예방하겠습니다



사회적 갈등 조기 해소

- ✓ 집단갈등 민원사안에 대한 ‘특별조사팀’ 운영
- ✓ 100인 이상 집단민원 집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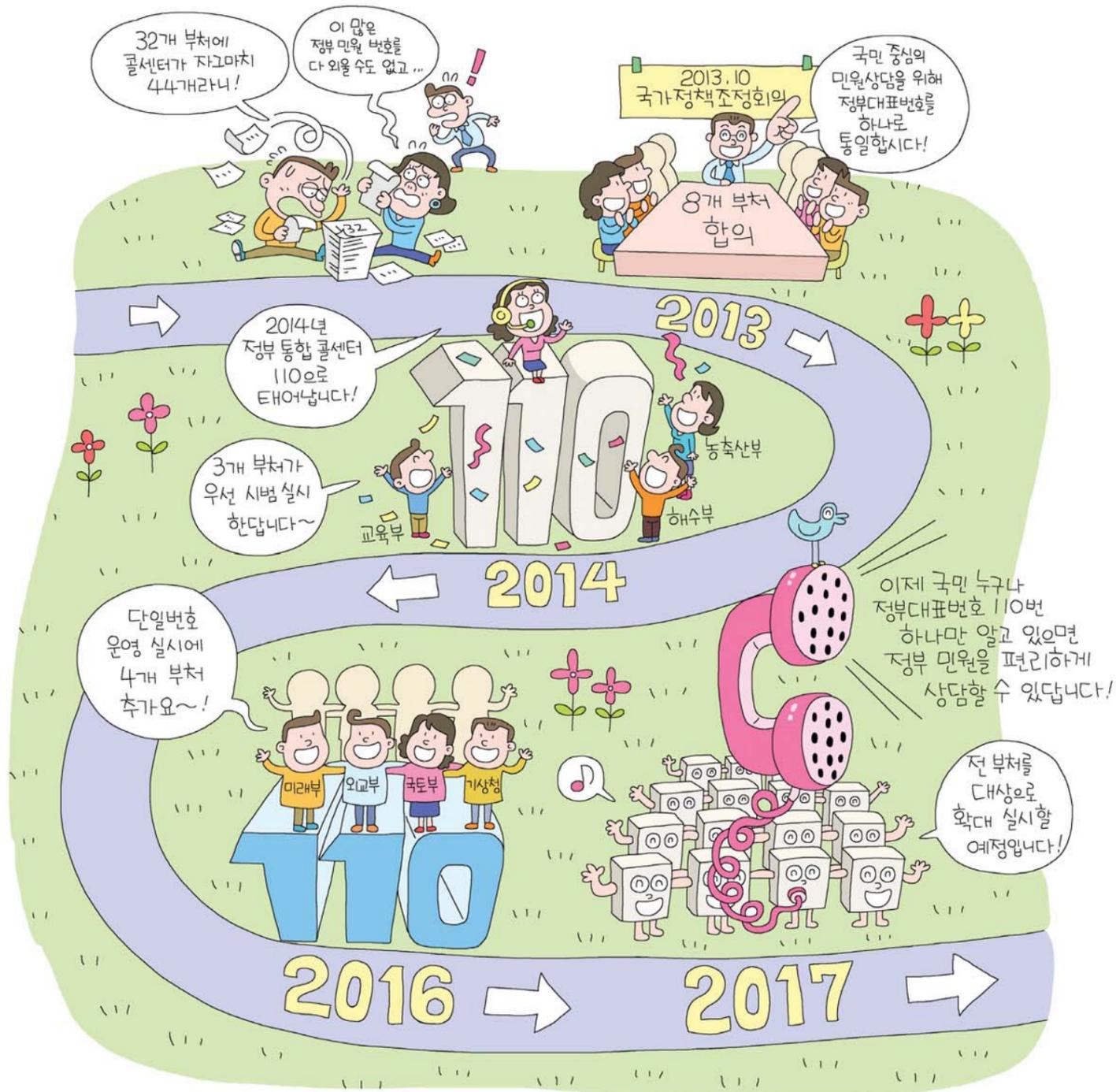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도입

- ✓ 갈등예상 민원 ‘관심-유의-경보’ 3단계 관리
- ✓ 국민행복제안, 110콜 상담사례 등 약 4백만건 분석

국민중심 민원상담을 위한 정부대표 단일번호(110) 운영

전화번호 하나로 모든 부처의 민원상담을 한 번에!

지난 한 해 동안 215만 건의 민원을 상담하며 명실상부한 '국민 해결사' 로 떠오른 110 콜센터가 더욱 진화한다. 2014년부터 교육부, 농축산부, 해수부 등 3개 부처를 대상으로 단일번호 운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110 콜센터는 2017년까지 전 부처로 확대되어 정부대표 단일번호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희망-전하기

국민권의 이야기 |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 소통의 창 | 국민행복제안센터





독립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니

“고인께서는 1972년과 1973년에 각각 형 확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보훈처 직원은 조금 전 했던 얘기를 되풀이했다.

“독립유공자에 훈장까지 받으신 아버지가 영예성을 훼손한다니요? 틀림없이 확인하신 것 맞나요?” 헤란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인생에 그런 오점이 있을 리 없었다.

“부친께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은 것은 맞습니다만, 사문서 위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문서 위조? 조세범처벌법? 그게 다 무슨 말이란 말인가? 헤란이 아는 아버지는 평생 대의를 좇아 사신 분이였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었다. 뭔가 잘못된 거야... 보훈처 직원은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규정에 대해 세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헤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헤란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펄떡 정신을 차리고 장례식장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누구라도 붙잡고 묻고, 찾아보고, 증명해야 했다. 아버지를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쉬시게 할 수는 없었다. 내일이 발인이었다.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 종이 무궁화 세 송이로 남아

결국, 아버지의 장례는 온전히 끝나지 못했다. 아버지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것이다. 헤란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유품을 정리했다. 아버지의 공적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하나라도 더 찾아 어디에라도 호소해 볼 생각이었다.

아버지의 작은 방에는 별다른 가구가 없었다. 작은 책상에 난 화분이 두 개, 종이로 접은 무궁화 세 송이가 달력에 붙어 있었다. 인젠가 전화통화에서 남편을 독립유공자로 둔 부인들이 찾아와 종이꽃을 선물해줬다고 좋아하셨던 게 생각났다. 익숙한 평안도 억양이 아직도 귓전에 쟁쟁했다. 무궁화 앞에는 허영계 먼지가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백발처럼 조용히 시들어가는 종이꽃을 헤란은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오래 사셨다. 백 살을 넘게 사셨으니 천수를 누린 셈이었다. 두 딸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어머니까지 작고하신 후 내내 혼자 사셨다. 영어와 중국어, 일어에 능해서 젊은 시절 상해와 미국을 오가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분이셨지만 말년은 고독했을 것이다. 한국에 혼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사는 데 정신이 없다가도 한 번씩 마음이 쓰렸다.

무심코 고개를 들어 한쪽 벽을 바라보았을 때, 헤란은 멈칫했다.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진이 액자에 고이 모셔져 있었다. 아버지는 선생의 사진을 벽에 걸어두고 매일 말없이 대화하셨을 것이다.



**애국지사 향산 구익균 선생
국립묘지 안장 행정심판**

세상 가장 고요한 곳

“우리 아버지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으시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헤란은 당황한 나머지 휴대전화를 놓칠 뻔 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던 조문객이 무슨 일이나는 듯 고개를 들어 헤란 쪽을 돌아보았다. 헤란은 검은 치맛자락을 한 손으로 모아 쥐고 종종걸음으로 병원 장례식장을 빠져나왔다. 입구에 삼삼오오 모여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 주차장 부근까지 걸어 나왔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귀에 바짝 붙인 채였다.





아버지는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이었다. 실제 선생을 모신 것은 1929년부터 1932년까지 3년간이었지만, 상해에서 처음 선생을 만난 이후로 하루도 선생의 말과 뜻을 되새기지 않은 날은 없었다.

아버지가 상해로 건너간 것은 신의주 고보 학생 시위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었다. 1928년 신의주 고보 학생 시절 '신우'라는 잡지의 편집장으로 활동하며 학생회를 조직하고, 조선총독부의 교육을 노예교육으로 규정, 이를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섰다. 아버지는 일본 경찰에 잡혀 구속됐다. 감옥에서 나온 후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했다. 거기서 안창호 선생을 만나 한국유학생회 간부로 흥사단에 가입했다.



일생 가장 빛나던 독립운동 시절

혜란은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속은 갈끔했다. 낡은 수첩과 독립유공자증, 그리고 아버지를 인터뷰한 신문기사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가끔 찾아오는 기자들이 있었다고 들었다. 아버지는 인터뷰를 할 때 정확한 연도와 숫자를 헛갈리는 법이 없었다.

<종전 직전 상하이에서 무역을 해서 큰돈을 벌었어. 돈이 있었으니까 상해에서 미국 비행기를 타고 충칭에 가서 김구 주석을 만날 수 있었지. 그때 김구 주석이 그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고. 상하이에서 충칭이 멀거든.>

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간혹 아이처럼 병긋 웃는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 듯 했다. 혜란은 저도 모르게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내 인생에 가장 화려했던 시간은 그 시절이었지. 상해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동포들이 많았어. 하지만 대부분 돈이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시간이 1년 이상 걸렸어. 나는 교민단장으로서 국내로 들어가려는 동포들을 도왔지. 배를 오게 만들고 그런 일을 했어. 한 2천여 명 되려나. 당시 상해에는 아편 장사를 해서 돈 번 사람이 많았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교민들 귀국 모금을 했어. 하지만 돈 한 푼 내놓는 사람 없었어. 그 사람들은 이런 때 아니면 다시 돈 벌 기회가 없다며 악착 같이 돈 버는데 집착했어. 하지만 나는 그때 내 돈을 빛나게 썼어. 한 60만 달러쯤 썼어.>

빛나는 돈.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도 빛났고 자신의 돈도 빛났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다. 흐뭇하게 웃는 백발의 아버지가 꼭 옆에 앉아있는 것만 같아서 혜란은 공연히 옆 자리를 쓸어보았다.

<도산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옥비라지도 해줬어. 1935년 상해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신의주로 압송되어 '치안 유지법 위반' 죄목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았거든. 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구속됐지. 내가 아는 사람 중 도산이 가장 훌륭해. 도산은 민족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를 나누지 않았어. 도산은 사람들은 각기 강점이 있으니 쓰일 데가 있다고 했어. 하나도 흠결이 없는 분이야.>

혜란은 신문을 꼭꼭 접어 서랍에 넣었다. 어느새 눈물이 차올라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첩에서 전화번호부를 찾아내 차례차례 통화버튼을 눌렀다.

권익위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마무리하다

아버지의 지인들은 자신의 일처럼 발 벗고 나서주었다. 아버지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에 연루됐다는 그때 그 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었다. 그 중 누군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라고 알려주었다. 혜란과 가족들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담당관은 유족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었다.

"나라를 위해 평생 노력하신 분인데, 유족으로서서는 억울한 심정이시겠어요. 자세히 알아보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관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혜란과 가족들은 답답하고 초조한 시간을 견뎠다. 드디어 담당관이 연락을 해왔다.

"정말입니까? 아버지를 국립묘지에 편히 모실 수 있게 되었다구요?"

"네. 부친의 형(刑) 확정 사실 중 1972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에는 실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았고, 1973년 사문서 위조 등의 위반도 본인 이익이 아닌 채관단 대표로 일하던 중 발생한 것인 점 등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생전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선생의 행적으로 볼 때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제야 혜란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었다. 아버지가 세상 가장 고요한 곳에서, 일생 가장 빛나던 시절을 꿈꾸며 편히 잠들 수 있기를 소망하는 일만이 남았다.



Case Information

독립유공자 구익균 선생이 2013년 4월 사망하자 고인의 유족들은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자 했지만 1972년과 1973년 형(刑) 확정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안장을 할 수 없게 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정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위는 고인의 생전 형 확정 사실에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다, 생전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일제에 항거하였고 이러한 공헌으로 1990년 12월,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으며, 도산 안창호의 비서실장 등을 지내며 독립 운동가를 양성하고 일제에 항거하여 활동하다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는 등 그의 희생 및 공적을 참작하는 것이 마땅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하면, 고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로 판단해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 및 절차를 통하여 고인의 국가나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비롯하여 인품, 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그가 끼친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송전선로’ 조정으로 보는 국책사업 갈등해결 방향

집단갈등 해결, 제3자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해 우리 사회의 이슈로 부각된 문제 중 하나는 국책사업으로 인한 국민 갈등이었다.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등 집단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6년간 갈등을 빚던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송전선로
노선 갈등으로
격한 충돌까지
일어나

지난해 12월 12일, 한국전력과 주민들 간 극심한 갈등으로 6년여 동안 끌어오던 전북 군산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사업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되며 화해의 악수를 나눴다.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은 한전이 새만금산업단지에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30.4km 구간에 걸쳐 송전탑 88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중 송전탑 46기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공사가 중단됐다. 토지가격만 1조 원 이상 떨어지고, 백혈병과 각종 암 발생률이 상승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며 밀양 송전탑 공사에 못지 않은 갈등이 일어났다. 주민들은 전답을 경유하는 당초 계획노

선 대신 새로 건설되는 새만금 건설용지로 우회하는 대안노선(만경강 방수제~남북2축도로)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구간에 주둔 중인 미군 제8전투비행단이 비행기 운항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해결책이 없이 답보상태에 이르자 결국 주민대책위는 2013년 10월 1일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대책위와 한국전력의 깊어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권익위는 14번에 걸쳐 현지를 방문했다. 양자 간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펼친 결과 주민들로부터 “권익위에서 대안노선이 국가안보에 지장이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시켜주면 양보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마침내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새만금 송전선로 설치 대안 노선도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내는데 성공했다. 한국전력과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미군부대에 보낼 질의서를 확정하고, 권익위원장 명의로 미군부대에 보내 그 회신결과를 양측이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했다. 6년이 넘게 끌어온 갈등이 아름다운 양보와 적극적인 중재로 마침내 화해의 열매를 맺은 것이다.

객관적인 제3의
조정자가 필요

권익위의 적극적인 중재로 이뤄진 이번 타결은 최근 부각된 밀양 송전탑 건설과정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것과 대비되어 더욱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다. 또 중립적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낸 권익위의 역할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나 집단 민원은 분쟁 당사자들보다 중립적 입장의 제3자가 나서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중재하는 것이 해결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갈등이 발생할 경우 소관부처가 직접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 중립적 입장인 제3자가 나서서 ‘조정’의 역할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점점 복잡해져가는 사회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OECD 34개 국가 중 2번째로 높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46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권익위에도 해마다 지역 사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발생한 집단민원이 매년 30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지 않아 시간을 끌게 되고 결국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지적하

기도 했다. 집단갈등 자체도 문제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인프라가 아직 취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때문에 새만금 송전선로 갈등 해결처럼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적 대형 갈등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권익위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적 갈등조정
부처 역할 강화

권익위는 해마다 40건이 넘는 집단갈등을 조정해 오면서 집단민원 해결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했다.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갈등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있는 군비행장들을 통합 이

전하는데 군부대와 주민들 간의 장기간에 걸친 갈등을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해결했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에 더해 잘 훈련된 140여명의 전문 조사관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형 갈등사안을 충분히 중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권익위 역시 사회적 집단갈등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이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현장 조정회의에서 “사회적 집단갈등 문제는 지나친 감정대립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권익위가 제3자적 입장에서 공공갈등이 첨예화되기 전에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갈등조정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권익위는 집단갈등민원 조정을 더욱 강화하고 갈등조정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갈등민원 조정팀 신설, 집단갈등 조정 관련 법적근거 보완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새만금 송전선로’ 갈등민원 현장에 찾이간 이성보 위원장

독자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 

여러분의 사연 하나가 따뜻한 사랑의 연탄이 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2014년, 많은 이들이 새 희망을 가득 품고 자신을 위한, 또 가족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과 함께 뛰어 온 <국민권익>도 2014년의 시작을 맞으며 독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뜻깊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국민권익>을 사랑하는 독자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 따뜻한 나눔문화를 만들어갈 2014 '독자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 '나눔 프로젝트'로 보답합니다

<국민권익> 편집실에는 항상 수많은 독자들의 엽서가 도착합니다. 정성껏 한 글자 한 글자씩 눌러쓴 사연은 물론 따스한 칭찬과 따듯한 충고도 있습니다. 엽서의 지면이 부족해 장문의 편지를 덧붙여 주시는 독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국민권익>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애독자 여러분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편집실에서는 더 나은 <국민권익>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레 쓰여진 독자엽서를 읽다 보면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한결같은 마음에 부응하고자 2014년 새해 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독자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독자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는 <국민권익>에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는 애독자들에게 보답하고자 권익위가 준비한 희망나눔 활동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엽서를 그저 <국민권익>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욱 밝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독자엽서 한 장이 따스한 연탄 한 장으로!

'독자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독자엽서 한 장이 바로 연탄 한 장이 되어 불우이웃들에게 따스함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엽서 자체는 가벼운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지만, 추위에 고생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반나절 동안 따스하게 지낼 수 있는 행복이 됩니다. 참여 방법도 간단합니다. 매달 독자 여러분들이 의견을 적어 엽서를 보내주시면, <국민권익> 편집실에서 이를 모아 엽서 한 장당 연탄 한 장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달 적립한 연탄은 연말에 <국민권익> 독자의 이름으로 '사랑의연탄나눔운동'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또 연탄을 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익위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연탄을 배달하며 독자 여러분이 보내 주신 나눔의 열정을 고스란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연말에 SNS 이벤트를 열어 더 많은 이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2014년 한해 동안 진행될 '독자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나눔, 어렵지 않아요!

- 1  <국민권익>을 읽고, 퀴즈를 풀어주세요!
- 2  독자 의견도 적은 후 우체통에 쏙!
- 3  도착한 엽서 수만큼 연탄이 적립돼요!
- 4  연말에는 SNS 이벤트에 참여해 더 많이 적립!
- 5  직접 배달하는 연탄으로 나눔지수 수욱!



독자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

기간 : 2014년 1+2월호~9+10월호 (총 5회)
 방식 : 1. 매 호마다 도착하는 독자엽서를 취합해 수량 파악
 2. 도착한 애독자 엽서 1장당 연탄 1개씩 적립
 3. 적립된 연탄은 연말에 <국민권익> 독자 이름으로 기부
 참여방법 : 매호 <국민권익> 독자엽서에 독자의견과 사연을 적어 발송(무료)

*연말에 국민권익위원회 SNS 이벤트 진행 예정



우체국 간 온라인 송금 수수료 전액 면제

우체국 이체 수수료, 완전 무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행복제안센터'는 국민 스스로가 아이디어와 개선안을 제안하고 정책 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이다. 혼자만의 아이디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실현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아이디어로 발전될 수 있는 것.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국민 희망과 행복이 실현된 사례를 만나보자.

왜 우체국은 계좌 이체 수수료를 받죠?

지난해 7월,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이 올라왔다. 우체국 간 계좌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보니, 10만원을 초과해서 이체할 때에는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더라는 것이다. 이미 다른 은행들은 동일은행 간에 계좌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영업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으니, 우체국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었다. 10만원 이하로 이체할 때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만 수수료 부담을 하지 않게 되니 부당한 것이 사실이었다. 제안자는 우체국 간 이체 시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 내용은 바로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로 넘겨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불균형을 해소해 고객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미 우체국예금은 지난 2011년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수수료를 은행대비 최저 수준으로 조정하고,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회신사용료 등을 고려해 징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9월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같은 은행간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우체국도 시중은행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우체국예금 및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고시를 개정해 2013년 10월 30일자로 우체국 간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 국민행복제안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우체국예금이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국영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국민행복제안 평가단에게 실효성이 높은 제안으로 평가받았다.

우체국예금 수수료 조정내역

구분	수수료(조정 전)		수수료(조정 후)	
	10만원 이하	면제	10만원 이하	면제
온라인 송금 (우체국간)	10만원 초과	1,000원	10만원 초과	면제
	10만원 이하	면제	10만원 이하	면제
납입(송금) (우편대체)	10만원 초과	1,000원	10만원 초과	면제
	10만원 이하	면제	10만원 이하	면제



권익더하기

국민권익이 간다 | 클로버 ACRC | 국민권익 Q&A | 110행복레시피



2014년 첫 번째 이동신문고 현장탐방

“현장에 답이 있다!” 민생현장으로 이동신문고가 간다!



국민의 고충 따라 지구 한 바퀴 반, 전국의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어주는 ‘찾아가는 민원해결 서비스’ 이동신문고가 새해 활동을 힘차게 시작했다. 2003년 ‘전국 순회상담’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한지 10여 년, 이제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현장에서 펼쳐진 2014년 첫 이동신문고 현장을 만나보자.



민생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

“오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의 후련한 표정에 이동신문고 조사관들도 환한 미소로 화답한다.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요?” 어색하게 상담장에 들어선 민원인들도 시청 직원과 권익위 조사관의 반가운 인사와 인사를 받으며 비로소 긴장된 표정을 살짝 푼다. 보통 사람들, 그것도 법과 전혀 상관없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 온 어르신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관청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하지만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낮익은 시청 직원이 안내하고 함께 상담해주자 훨씬 편한 모습으로 자신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풀어낸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마을 청년회장의 부축을 받으며 찾아온 할머니, 부동산 문제로 고민하다가 이동신문고 플래카드가 붙은 버스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왔다는 어르신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며 이동신문고 현장은 점점 분주해진다.

세상이지만, 이렇게 일부러 각 지역을 찾아가 상담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조사관들도 현장 해결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상담장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참여해 현장에서 즉시 합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박범서 이동신문고TF 팀장은 ‘최대한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 관련 변호사도 별도로 배치하고, 2월 중에는 금융분야 민원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이동신문고는 전문 조사관들이 매월 기초지방자치단체 3~4곳을 방문해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듣고 상담하면서 정부와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고충이 있어도 해결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과 인터넷이나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이동신문고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동신문고는 2003년 10월 ‘전국 순회상담’으로 시작한 이래 지난 10년간 284개 지역에서 총 9,732건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이 중 1,839건은 현장에서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합의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간담회 등을 통해 435건의 제안사항을 수렴해 139건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민생 현장에 직접 찾아가므로 써 풀리지 않는 고충과 억울함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다

이동신문고는 보통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시청이나 군청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 상담장을 마련해 운영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동신문고가 찾아간 지역은 모두 51개 지역. 그 중 15번은 맞춤형 이동신문고라고 해서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참전용사 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민원 상담을 원하면 상담일에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찾아가면 된다. 상담장에는 농업·축산, 산업·환경, 주택·건축, 행정·문화·교육 등 10개 분야의 전문 조사관들이 있어 원하는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동신문고를 찾는 민원 중 특히 많은 사례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민원이다.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제도권 내에서 미처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가진 소외된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동신문고 팀은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해 사회복지사와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생계가 어려운 경우 쌀이나 연료 등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 충남지역 이동신문고 현장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논산시에서는 제3자 명의의 임대셋방에서 거주하던 할머니 한 분이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도움을 요청해왔다. 이에 조사관들은 할머니가 새 집을 얻을 수 있는 비용 마련 방법을 알아봐 주는 한편, 논산시청에 요청해 임대 아파트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 당장 생활이 어려운 할머니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쌀 20kg을 지원했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역 현안인 두마초
현장의 소음 문제
합의 성공**

이동신문고의 활동은 당일 상담장을 여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달 전에 해당 지역에 출장을 나와서 미리 관계기관의 협력을 구하고,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해결요청 사안 등 민원동향을 파악하



두마초등학교 현장을 방문한 이동신문고팀



고 현장을 답사한다. 다양한 민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계룡시에서는 두마초등학교의 철도소음 문제가 현안으로 제시되어 이동신문고 팀이 해결에 나섰다. 학교 인근에 호남고속철도가 지나가 수십년째 철도소음 피해를 겪어온 두마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이 제기한 집단민원 증재를 위해 나선 것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교육지원청, 계룡시 등 관계기관도 수차례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비용부담과 예산확보 곤란 등으로 인해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던 사안이었다. 이날 오후 이동신문고 팀은 민원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두마초등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학부모, 학생,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계룡시청, 교육지원청 등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합의를 이끌어냈다.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를 대표하는
현장종합
도움센터가 될 터**

충남 지역에서 시작된 올해 이동신문고 활동은 농어촌 및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총 50회 정도 운영되는데, 국민을 찾아가 고충을 풀어주는 본래의 기본 취지에 더욱 충실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소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지난해보다 늘리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충 해소에도 적극 나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창구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제도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그동안 이동신문고를 통해 상담이 어려웠던 금융피해 민원의

66
국민을 찾아가 고충을 풀어주는
본래의 기본 취지에
더욱 충실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66

해소를 위해서 금융소비자보호 단체와의 협업도 진행한다. 이렇게 이동신문고 제도는 명실상부한 '정부의 현장종합 도움센터'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국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시원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지역·일정> * ()는 날짜

월별	권역	운영 지역
1월	충남	3 논산시(22), 계룡시(23), 금산군(24)
2월	전남	3 해남군(26), 목포시(27), 무안군(28)
3월	경남	3 함안군(26), 사천시(27), 하동군(28)
4월	전북	3 진안군(23), 전주시(24), 김제시(25)
5월	-	- 미 실시(6.4. 지방선거 전)
6월	경북	3 구미시(25), 김천시(26), 상주시(27)
7월	충북	3 단양군(23), 괴산군(24), 보은군(25)
8월	-	- 미 실시(하계휴가, 을지연습)
9월	경북	4 청도군(23), 경산시(24), 칠곡군(25), 성주군(26)
10월	강원	3 태백시(22), 정선군(23), 평창군(24)
11월	전남	4 화순군(18), 나주시(19), 장성군(20), 담양군(21)
12월	인천·경기	3 파주시(17), 김포시(18), 강화군(19)
2015.1월	충남	3 홍성군(21), 당진시(22), 예산군(23)

2014년 권익위 국제협력 활동계획 대한민국의 반부패·청렴, 세계 수준에 발맞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민권익 보호와 반부패·청렴정책 확산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4년은 권익위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청렴활동에 기여하는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오는 7월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회 및 국제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어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또 개도국의 반부패역량 강화,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협력 강화와 청렴정책 전수·전파, 재외국민 권익보호에 초점

2013년은 권익위에 있어 의미 깊은 한 해였다. 지난해 9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아태지역 8개국 반부패기구가 참여한 제7차 반부패 기관장 회의(Anti-Corruption Agency Forum)와 국제 반부패 우수사례 포럼(International Forum on Anti-Corruption Best Practices)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반부패 선도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반부패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국제 반부패라운드를 적극 이행하고 국제적인 대외신인도를 높인 한 해였다. 또한 아시아 4개국과 체결한 MOU의 이행을 위해 개도국에 부패방지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국제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재외국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2014년 권익위의 국제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외적으로는 오는 7월 AOA 이사회 및 국제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

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우수 청렴정책 전수·전파, 재외국민 권익보호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G20, UN 등 국제협약에서의 협력활동 강화

우선 권익위는 다양한 국제협력에서의 활동을 강화한다. 오는 11월 호주에서 열리는 제9차 G20정상회의에 대비해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과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3단계 권고에 대한 이행사항을 서면 보고하고, 그리스에 대한 3단계 현장 재심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OECD 회원국을 포함해 40개국이 가입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99년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시행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한 권익위는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

아르헨티나 산타페
10월
세계 옴부즈만(IO)
이사회

오스트리아 비엔나
3월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제5차 이사회

우즈베키스탄
5월
한-우즈베키스탄
옴부즈만
MOU 이행협력회의

대한민국 서울
3월
주한 외국기업 CEO
초청 정책 간담회
7월
AOA 이사회 및
옴부즈만 국제컨퍼런스
12월
한-태국 옴부즈만
MOU 연장 체결

튀니지 튀니스
10월
제16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9월
제19차 ADB/OECD
아태 반부패 회의 및
신규 옴부즈만 MOU
체결 제안

국으로서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신고자 보호 등 우수 반부패 제도를 커리큘럼에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반부패 국제위상을 강화하고,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의 이사국으로서 국제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옴부즈만·반부패 국제협력의 중추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부패 협력사업, MOU 체결 등 개도국 적극 지원

또한, 권익위는 세계은행(World Bank, WB) 자금으로 반부패 협력 사업을 통해 청렴도 평가 등 권익위의 우수 반부패 사례를 개도국에 전파하고, 영국 외무성 번영기금(Prosperity Fund)을 활용해 신고자 보호 세미나 등 반부패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부패 MOU를 체결한 몽골,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반부패 워크숍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태국에서 청렴 투명성 평가 세미나도 개최하게 된다. 또 5월에는 전 세계 공무원을 대상으

로 반부패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주요국가와 MOU를 확대해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적극 나서게 된다. 이미 인도네시아, 키르기스를 비롯해 총 6개국과 옴부즈만 MOU를 체결했으며, 오는 5월과 7월 우즈베크, 태국과 MOU 이행방안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 MOU 체결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부패인식지수(CPI) 제고를 위해 오는 3월 주한 외국인 CEO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CPI 지수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지원하며, 홍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E-mail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홍보 강화를 위해서 영문 권익백서 제작, 뉴스레터 등으로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권익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주요 국민권익 개선사례 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가까이에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국민권익의 수호자로 함께하고 있다.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 고충민원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자.

농자은행의 매입비축농지 현황은 공개해야



Case

귀농을 준비하던 A씨. 정착하고 싶은 지역을 찾던 중 농자은행에서 시행하는 '농자은행의 농지매입비축사업'에 대해 알게 됐다. 은퇴한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장기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좋은 땅을 찾고 있던 A씨는 바로 농자은행에 정보를 요청했지만 영농법인이나 영농후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공공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데 의문을 품은 A씨는 권익위의 문을 두드렸다.

Solution

권익위는 한국농자은행사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농지의 지번, 면적, 용도 및 임대기간 등의 정보만으로는 농업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침해받는다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린이집 입소 순위 결정을 위한 맞벌이 부부 인정서류 확대



Case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맞벌이를 하며 지난해 6월 드디어 자기 가게를 갖게 된 C씨. 딸은 어린이집에 맡기기로 결정하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 우선순위로 입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C씨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C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Solution

현재 자영업 증명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C씨처럼 이제 막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에 권익위는 C씨 부부를 맞벌이 부부로 인정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권고했으며, 또한 실제 영업 또는 실제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자격증명 서류에 포함시키는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도 같이 권고했다.

국가보훈처 잘못으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은 환수불가



Case

월남전 참전유공자인 Y씨는 만 65세가 되던 해부터 매달 11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기 시작했다. 4년이 넘은 어느 날, 갑자기 국가보훈처로부터 그동안 받은 참전명예수당 550만원을 돌려달라는 통지가 날아왔다. Y씨가 38년 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닌데 착오로 잘못 지급되었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국가보훈처의 행정착오를 책임지고 이제와서 환불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 Y씨는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Solution

중앙행심위는 참전명예수당 환수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국가보훈처가 수당 지급이 시작되기 두 달 전인 2009년 3월경 Y씨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심의도 없이 지급대상으로 결정했고, Y씨에게 수당 환수처분을 내린 직후인 2013년 7월경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봉사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과거 범죄에 대한 뉘우친 정도를 이유로 Y씨를 다시 수당지급대상으로 의결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국가보훈처의 행정착오나 과실일 뿐 Y씨 책임이라고 볼 수 없어 과거 받았던 참전명예수당의 환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줄기세포가 암 특효라고 속여 수익 챙긴 업자 검찰 송치



Case

골수암으로 투병 중이던 B씨는 얼마 전 일본에서 개발한 줄기세포 백신을 시술받으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벌써 10여 명의 환자가 시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B씨는 여기저기 수소문해 업자를 알아내 줄기세포 배양을 위해 혈액을 채취하고 돈을 지불했다. 줄기세포 상품 2개에 총 시술비용만 6천 6백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곧 시술받은 환자 중 하나가 3주 만에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깜짝 놀란 B씨는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했다.

Solution

이 사례는 권익위 접수 후 경찰청에서 즉시 수사를 진행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자의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었던 것. 그 결과 해당 업자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었고, 향후 벌금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힘든 사람들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기를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는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하루 평균 8,600건에 달하는 상담전화는 이어지는 바쁜 와중에도 110 상담사들은 민원인의 목소리 하나 하나에 귀 기울이고 있다.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한 상담사의 상담 내용을 소개한다

다양한 민원,
도움 주지 못할 때가
가장 안타까워

동네 앞 가로등 2개가 고장이 나서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가로등은 통행자들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나는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 전화번호를 안내 후 연결하려고 했지만 민원인은 '이미 전화를 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직접 전화연결을 시도해보니 정말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관공서 전화 연결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민원인의 연락처와 성함을 확인하고 구청 담당자에게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다행히 금방 가로등을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전화연결이 바로 되지 않아 수리가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었는데, 빠른 조치로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어 걱정을 덜 수 있었다.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정말로 여러 종류의 민원인 유형이 있다.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서 상담사를 힘들게 하는 민원인도 있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일을 알려주시고 해결을 원하는 민원인은 어떻게든 돕고 싶은 마음이 크다. 가로등 고장 신고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어두운 길을 걸으며 느끼게 되는 불안감과 정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가로등 고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전화까지 걸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시민 의식은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을 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다. 그 중에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났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이어서 행정기관의 힘이 닿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다. 전화기 너머로 힘들어 하며 도움을 구할 때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양해를 구하게 될 때는 정말이지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가로등 고장 민원처럼 어떻게든 담당자가 정해지고 가로등에 불이 켜지는 순간처럼 어떤 민원든지 다 해결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가로등이 고장난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두운 밤길을 걱정해서 전화를 걸게 되는 마음처럼 우리 사회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정부 민원안내콜센터 110번이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작은 소망으로 다가가길 기원해 본다.



행복 나누기

타바타박 힐링여행 | 감성충전소 | 스포츠 인사이트 | 건강 다이어리 | 청렴 오디세이 | 똑알이두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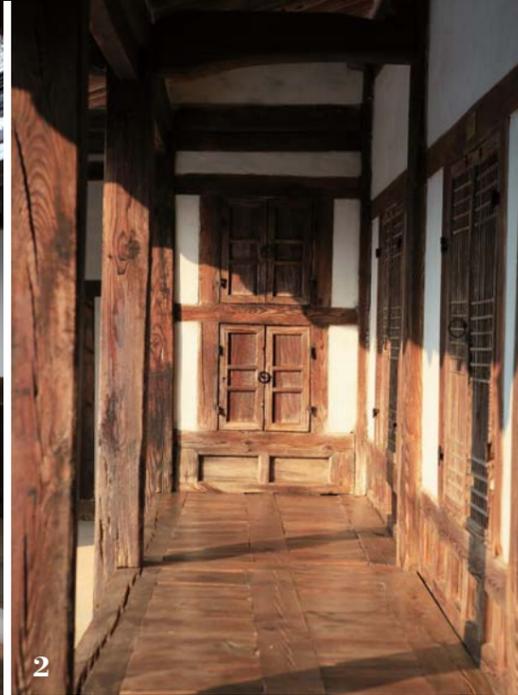


마음을 치유하는 넉넉한 쉼

친구처럼 나를 안아주는 부여 민칠식 고택

친구란 무엇일까? 영화 <친구>는 '오래두고 가까이 사귀 벉' 이라 말한다.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분초를 다투며 살아가는 우리는 친구를 잃어버리고 산다. 인간은 저마다의 편리를 좇아 이곳저곳으로 터를 옮겨 다닌다. 그런 의미에서 수백 년을 한 자리에 뿌리내린 한옥이야 말로 오래된 벉과 같은 친구다. 몸과 마음이 지쳤다면 포근하게 나를 안아줄 친구 같은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보자.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고 쉼표 하나 찍어줄게다.





1. 겨울은 한옥이 주는 색다른 멋을 즐길 수 있다
2. 남향인 민칠식 가옥은 언제나 해가 잘 들어온다
3. 인근의 부소산성은 산책로와 숲이 어우러져 있어 걷는 재미가 있다
4. 민칠식 가옥 옆 제철은 숲과 풍경이 어우러졌다



민칠식 가옥은 현재 백제관리라 명하고 부여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옥스테이 문의는 041-832-2722. 취사는 할 수 없으며 사전예약을 할 경우 인근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배달해준다. 왕포식당(010-9555-1563)에 문의하면 된다.
 부여군청 문화관광과 041-830-2010

수백 년의 긴 세월 한결같이 지켜오다

느리게, 천천히 산다는 것은 그와 반대로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 엄청난 모험일 수 있다. 하지만 가끔 느림의 미학을 즐길 때 우리 몸과 마음은 진정한 힐링을 체험한다.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땅이다. 백제는 부여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나라는 폐망했지만 이곳에 터를 잡은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삶을 이어간다. 신라의 수도 경주가 그렇듯 백제의 마지막 수도 부여 역시 경주에 뒤지지 않는다. 노천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리 곳곳에 역사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부여읍내에 있는 민칠식 가옥은 번잡스러운 도심을 떠나 한옥에서의 하룻밤을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좁다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꽤나 넓은 터가 나온다. 그 중심에 고택이 자리하고 있다. 고택 뒤 야트막한 산에는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노송과 느티나무 그리고 울창한 대나무가 병풍처럼 드리워졌다. 그리고 남쪽을 바라보는 앞면에는 비옥한 들녘이 펼쳐지고 왕포천이 흘러 금강에서 합류한다. 물론 지금은 집들이 들어서서 예전과 같은 조망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만큼 좋은 터는 없어 보인다.

민칠식 가옥이 있는 중정리는 예부터 여흥 민씨와 용인 이씨가 모여 살았다. 원래 민칠식 가옥은 용인 이씨의 소유였는데 민칠식의 고조부 때 이 집을 구입했다 전한다. 여흥 민씨는 조선시대 4명의 왕비를 배출했던 때때 굵은 가문이다.

솟을대문으로 향하는 넓적한 돌길은 레드카펫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세월이 전하는 정감이 깊다. 사랑채 기와에 '송정87년' 이라 적

힌 기록이 있다. 즉, 1705년에 건립되었다는 뜻인데 고택의 형태로 보서는 19세기 건축양식을 따랐다.

집안으로 들어가면 사랑채와 마당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사랑채는 꽤나 높게 단을 쌓고 지었는데 마루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빼어나다. 옛날에는 늦은 밤까지 글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싶다. 사랑채를 구경하고 안으로 들어서자 'ㄱ' 자 구조의 안채가 모습을 드러낸다. 다소곳하게 내려앉은 눈이 한옥의 정감을 더한다. 따뜻한 햇볕을 받은 기와에서는 눈이 녹아 고드름이 열렸고 그 줄기를 따라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진다. 부엌 옆 작은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자 현대식으로 꾸며진 화장실이 있다. 한옥의 정취는 가져가면서 불편함은 최소화한 노력이 엿보인다.

힐링, 일상의 틈바구니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

뒷산을 바라보고 걸음을 잠시 멈춘다. 눈을 감고 귀에 신경을 집중시킨다. 작은 바람에 댓잎이 흔들리며 말을 걸어온다. 마른 댓잎과



젖은 댓잎의 소리가 다르다. 키 큰 대나무와 키 작은 대나무의 소리가 다르다. 실눈을 떠 하늘을 올려다보면 댓잎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은빛 찬란한 태양을 만날 수 있다. 그렇다. 힐링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일상의 바쁜 틈바구니 속에서 잠시 주위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힐링이다.

고풍스러운 멋이 가득한 한옥을 바라보고 있으니 내가 자연의 품에 머물고 있음이 분명하다. 사람 손때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모습이 자연 그대로다. 숲 막히는 콘크리트 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한옥의 흙벽과 나무의 생명력은 즐거움을 넘어 자연으로의 복귀를 외친다.

한옥에는 문이 많다. 미는 문, 여는 문, 천정에 부착하는 문. 문의 형태도 여러 가지다. 그 가짓수만큼 용도도 다양하다. 사람이 다니는 문, 바람이 다니는 문, 그리고 빛이 다니는 문. 한옥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다.

“한옥은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추워요. 그래서 한옥체험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지요.” 관리인의 말이다. 옳은 말이다. 내 기억에도 외가에 갔을 때 머리맡에 빨아둔 걸레가 아침이면 얼어있는 것을 봤다. 심지어 자리끼까지 얼어붙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생활의 지혜다. 두한족열(頭寒足熱)이라고 하지 않던가. 즉,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한 게 건강에 좋다는 뜻이다. 온돌난방을 하는 한옥은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이불만 덮고 있으면 금세 따뜻해진다. 물론 콧등은 시리다. '후~' 하고 불면 입김까지 나온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건강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면 꼭 싫다고 할 일만은 아니다.

느림의 여유를 꼭 멀리까지 와서 찾을 필요는 없다. 한가롭게 시간을 보낼 때 느끼는 행복감은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즐거움이다. 무엇에 구속됨 없이 천천히 숨 쉬고 행동하다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여유를 즐길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 있음에 더욱 감사하게 될 것이다.



함께하면 좋은 여행지

▶ **공남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연못으로 알려진 공남지는 민칠식 고택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부여 궁궐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공남지라 부른다. 서동으로 잘 알려진 백제 무왕의 탄생설화가 전해진다. 연못 주변에는 버드나무가 유독 많다. 겨울바람에 춤추듯 흔들리며 새벽을 깨운다. 연못 가운데에는 섬 '포룡정' 이 있다. 백제의 미학이 연못에 함축적으로 표현되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연못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20여 리 떨어진 곳까지 수로를 만들었다고 전한다. 연못의 초창기 규모는 3만 평(10만㎡) 정도라 하니 웅성했던 백제의 문화를 실감할 수 있다. 연못을 한바퀴 돌아보는데 30분이면 충분하다. 주변에 휴식할 수 있는 벤치가 마련되어 있다. 문의 041-830-2330

▶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106m의 나지막한 부소산에 축성되어 백제의 마지막을 지켜봤다. 산성의 정면에 서면 부여시내가 내려다보이고 뒷면에서는 백마강이 조망된다. 계백장군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삼층사와 일출을 볼 수 있다는 영일대, 백마강가 절벽에 자리한 낙화암 등 중요지점마다 역사적 배경을 가진 볼거리가 많다. 무엇보다 산책로 양옆으로 조성된 숲이 있어 걷는 재미가 있다. 특히 겨울에는 번잡스럽지 않아 조용히 나를 되돌아보며 앞날을 설계하기 좋다. 문의 041-830-2527



THE BROADWAY MUSICAL WICKED

돌아온 초록 마녀의 놀라운 비상

초록 마녀 엘파바가 돌아왔다. 2012년 오리지널 팀 내한 공연으로 호평을 받았던 뮤지컬 <위키드>가 이번에는 한국어라는 새 옷을 입고 관객들에게 다시 날아든 것. 과연 이번 공연에서는 어떤 마법 같은 공연을 선사할지 다시금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말 초연, 새로 쓰는 <위키드>의 역사

2012년 오리지널 팀의 내한 공연 당시, 개막 50일 만에 15만 명 관객을 돌파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놀라운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뮤지컬 <위키드>가 한국어 버전으로 완벽 변신해 다시 돌아왔다. 2003년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공연된 후 지금까지 미국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는 <위키드>.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탄생 10주년을 맞은 지난 해 11월, 드디어 한국어 버전으로 무대에 올리게 된 것. 전 세계 7번째 외국어 프로덕션 무대로서 연출가 리사 리구일로를 포함한 <위키드> 오리지널 스태프들이 대거 참여해 오리지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작되었다.

캐스팅 과정에도 많은 이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제작 전 오디션 단계부터 <위키드>의 명성을 아는 뮤지컬 배우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 7개월 간 무려 7번의 오디션을 거쳐 라인업이 갖춰졌다. 국내 뮤지컬계의 디바 옥주현과 신예 박혜나가 주인공 초록 마녀 엘파바 역을 맡게 되었으며 베테랑 연기파 정선아와 김보경이 글린다 역으로 정해졌다. 이외에도 이지훈, 조상웅, 남경주 등 국내에 내로라 하는 뮤지컬 배우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한국어 <위키드>에서 무엇보다 공을 들인 부분은 바로 뮤지컬 넘버(뮤지컬에서 배우들이 부르는 노래)와 대사 등의 번역.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오리지널 팀의 적극

적인 감수 지원을 받아 원작의 느낌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오리지널 <위키드>의 내한 공연 당시 자막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던 이지혜 작곡가 겸 번역가를 비롯해 작사가, 작가, 에디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작업에 동참해 한국인의 입맛에 들어맞는 맛깔스러운 대사들을 창조해냈다.

오리지널 <위키드>의 명성 그대로

뮤지컬 <위키드>는 동화 '오즈의 마법사'의 스토리를 유쾌하게 뒤집은 내용으로 그레고리 맥과이어의 1995년 작 동명 소설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쁜 마녀로 등장하는 서쪽 마녀 엘파바는 사실 정의로운 인물이었다는 독특하고 기발한 설정의 줄거리. 이렇게 놀라운 상상력으로 무장한 <위키드>는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되자마자 큰 호평을 받았다. 당시 <USA TODAY> 등 언론과 평단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좋은 평기는 자연스럽게 수상으로 이어졌다. 그 해 <위키드>는 토니상, 그래미상 베스트 뮤지컬 앨범상, 드라마 데스크상 등 굵직굵직한 상들을 연이어 휩쓸었다. 또 작년 말에는 한 주간 입



장수익 320만 1333달러를 기록하며 주간 박스오피스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앞서 브로드웨이 역사상 최초로 주간 입장 수익 300만 달러를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던 <위키드>는 이제 전 세계 13개국, 100여 개 도시에서 공연되고 있으며, 390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이미 공연을 관람했다. '대작' 뮤지컬답게 의상이나 무대 장치 등도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연에 앞서 제작 과정이 공개되어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위키드>의 무대 의상은 그 화려함이 먼저 눈길을 잡아끈다. 블루와 그린 컬러의 오묘한 대비로 동화 속 인물들이 현실로 튀어나온 듯 색다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위키드>의 무대 의상이 더 특별한 이유는 350여 벌에 달하는 의상 중 단 하나의 똑같은 디자인도 없다는 점. 전 세계 <위키드> 공연의 의상 디자인을 맡아온 디자이너 빌리 로치가

의상의 제작부터 드레스 피팅까지 무대 의상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 참여해, 오리지널 버전 전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퀄리티를 만들어냈다.

54개의 장면을 각기 다른 스타일로 연출해내는 조명과 무대도 놀랍다. 특히 기둥에 장식된 드래곤 세트가 눈길을 끄는데, 기술 매니저 카메론 플린트는 이를 거대한 '아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전체 무대는 시계의 내부 장치에서 기인했고 객석까지 연결되어 있어 마치 관객들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인물들과 교감하듯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동화의 세계관을 가져온 만큼 아이들도 동화책을 읽듯 쉽게 몰입할 수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선입관에 대한 내용을 담는 등 깊이 있는 메시지도 담아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재미있게 공연을 즐길 수 있을 듯. 환상 속의 나라 오즈를 시각적으로 묘사해내는 등 화려한 무대와 아름다운 뮤지컬 넘버들도 관객들의 눈과 귀를 동시에 즐겁게 해준다.

Case Information

- 공연명 : 뮤지컬 <위키드>
- 공연장소 : 샤롯데씨어터
- 공연기간 : 2013년 11월 22일 ~ 2014년 2월 28일
- 공연시간 : 평일 오후 8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2시 오후 7시(월요일 공연 없음)
- 러닝타임 : 2시간 50분 (인터미션 20분 포함)
- 관람료 : 6만~14만원
- 공연문의 : 클립서비스 1577-3363
- 홈페이지 : www.wickedthemusical.co.kr



김연아의 마지막 무대

소치동계올림픽 피겨 100배 즐기기!

‘피겨여왕’ 김연아(24, 올댓스포츠)가 오는 2월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선수생활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그동안 김연아는 18년간의 선수생활 동안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며 많은 감동을 주었다. 이제 마지막 7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녀는 어느 때보다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은반 위에 마지막으로 서는 그녀의 올림픽, 우리는 어떻게 봐야할까.

쇼트 ‘어릿광대를 보내주오’, 이전의 공식은 잊어라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김연아가 준비한 쇼트프로그램은 서정적인 음악인 ‘어릿광대를 보내주오’다. 이 음악은 한 중년 여성의 사랑에 대한 아픔과 그리움을 그려낸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에서 주로 강렬한 음악들을 선택해왔다. 시니어 컷 데뷔곡으로 전 세계에 김연아만의 강렬한 인상을 남긴 ‘록산느의 탱고’부터 시작해, 현재까지도 김연아의 대표 작품으로 꼽히는 ‘죽음의 무도’, 지난 밴쿠버올림픽에서 선보였던 ‘제임스본드 메들리’, 뱀파이어에 물려 비극적인 결말을 맺은 여주인공을 그려낸 ‘뱀파이어의 키스’ 등이 그러하다. 마치 ‘김연아 쇼트=강렬’이라는 공식과도 같았다. 하지만 김연아는 선수생활의 마지막이 될 이번 올림픽 무대만큼은 기존과는 다른 변화를 주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초반의 콤비네이션 점프 이후 하늘을 보며 아련한 미소를 짓는 김연아의 표정과 중반부의 더블악셀 점프 후 한 마리의 나비를 연상하게끔 팔 동작으로 갈망하는 뒷모습이다. 또한 스텝에선 슬픈 여인의 가녀린 뒷모습을 그려낸 움직임들이 눈시울을 자극하게끔 만든다. 마지막까지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한 김연아의 노력은 선곡패턴부터 시작해 프로그램의 안무와 표현력에도 묻어 나오고 있다. 올림픽 경기를 보기 전, 그동안 그녀가 해온 쇼트프로그램과 이번에 새롭게 도전하는 그녀의 프로그램을 한 번 비교해보자면,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쇼트	김연아 출전 피겨스케이팅 일정
· 2월 20일 24:00	여자 쇼트 프로그램 (김연아, 김해진, 박소연 출전)
· 2월 21일 24:00	여자 프리 스케이팅 (김연아 출전)

프리, 은반 위의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아디오스 노니노’
한편 김연아가 프리스케이팅 곡으로 택한 것은 ‘아디오스 노니노’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향한 추모의 마음을 그려낸 음악이다. ‘아디오스’라는 뜻은 스페인어로 ‘작별’, ‘안녕’을 뜻하는 단어다. 김연아는 이미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이 프로그램이 그동안 해온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어렵다고 한 바 있다. 게다가 김연아의 프로그램 구성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복잡하며, 점프 앞뒤로 연결동작들이 상당히 많아 실 틈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김연아가 표현해내고 있는 이 음악은 단순히 추모에 대한 슬픈 감정만 들어가 있지 않다. 중반의 스텝이 시작되면서 빠른 템포로 바뀌는 부분에선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감정을 그려내는 김연아의 연기가 단연 돋보인다. 또한 후반부의 트리플살코 점프를 뛴 다음 그녀는 손가락으로 귀여운 표정연기를 보여주고는 한다. 마치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했던 추억을 생각하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엔딩에서는 부침을 잃은 절망감을 온몸으로 표현해



피겨여왕의 마지막 피날레, 박수로 보내주자
김연아는 그동안 선수생활을 시작한 이래 줄곧 한국 피겨의 역사를 새로 써왔다. 이미 많은 외신들은 그녀의 올림픽 2연패를 기정사실화 할 정도로, 다른 선수들과 차원을 달리한지 오래됐음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녀의 마지막을 결과에 상관없이 박수로 보내줘야 한다. 한국 피겨는 김연아의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생겼고, 이제 국내에는 노비스 급수 대회를 따로 치를 정도로 상당한 피겨 인구가 탄생했다. 피겨 전용링크가 없어 메뚜기 훈련과 오랜 기간 홀로 싸워 견뎌야만 했던 그녀는 최근 미디어테이에서 ‘소치는 마지막 축제’라며 훌기분하게 마무리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많은 이들은 김연아를 보며 새로운 희망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행복해했다. 오랜기간 우리가 그녀에게 받은 값진 선물을 이제는 우리가 그녀에게 되돌려 줘야 할때다. 우리가 그녀의 마지막 경기를 보는 자세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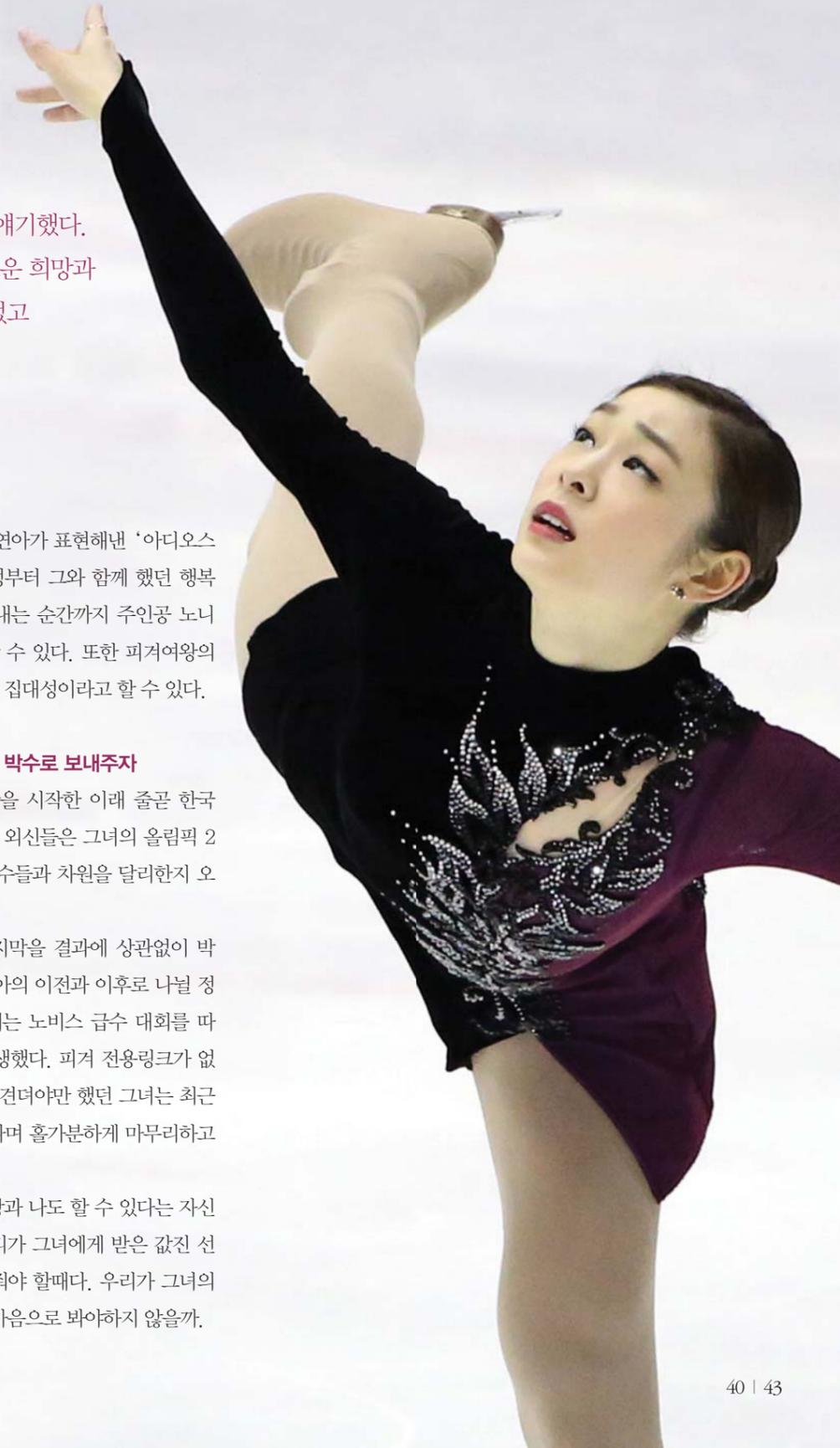
김연아는 최근 미디어테이에서 ‘소치는 마지막 축제’라며 훌기분하게 마무리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많은 이들은 김연아를 보며 새로운 희망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행복해했다.

66

내며 연기를 마친다. 이처럼 이번에 김연아가 표현해낸 ‘아디오스 노니노’에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감정부터 그와 함께 했던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순간까지 주인공 노니노의 모든 것을 표현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겨여왕의 18년간 선수생활을 통해 얻은 연기력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은 김연아를 보며 새로운 희망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행복해했다. 오랜기간 우리가 그녀에게 받은 값진 선물을 이제는 우리가 그녀에게 되돌려 줘야 할때다. 우리가 그녀의 마지막 경기를 보는 자세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건강 찾는 똑똑한 채소 섭취법 채소를 ‘똑’ 소리나게, 더욱 건강하게 즐기자!

나물 반찬이 가득하던 밥상에서 고기나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자리가 늘고 있다. 채식 위주의 식단이라 자부했던 한식 밥상도 더는 안전 지대가 아니다.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노화방지, 독소 배출 등 체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채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을까?



**영양 가득한
채소로
식탁을 풍성하게**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하루에 채소와 과일 400g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채소와 과일 섭취량은 평균 292.4g으로 1일 권장량 이상 섭취하는 한국인은 6.7%에 불과하다. 한국 영양학회에서는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김치를 제외한 채소 반찬을 끼니마다 70g씩 2접시, 과일은 하루 3회 섭취를 권장한다.

매일 잎채소를 올리면 사계절 내내 식탁이 풍성해진다. 고기반찬을 굳이 올릴 필요 없이 샐러드, 무침 등의 조리법을 추천한다. 잎채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칼륨, 칼슘,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다. 이 성분들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몸에 활력을 준다. 몸의 저항력을 높여 고혈압·당뇨병 등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채소를 무치려면 참기름이나 들기름, 마늘, 식초, 설탕 등을 최소한으로 넣어 잎채소 자체의 맛을 살린다. 데칠 때는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야 비타민 등 영양소가 덜 파괴된다.

최근에는 뿌리채소가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엉에는 장의 칼슘 흡수를 돕는 다당분인 이눌린 성분이 들어 있어 우엉과 칼슘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진다. 한의학에서는 우엉이 신장 기능을 도와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어혈 배출을 좋게 한다고 본다. 무침이나 볶음, 조림, 샐러드, 튀김으로 활용한다. 연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내 배변 활동을 촉진하고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변비와 비만을 예방한다.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침착하는 것을 막는 레시틴,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 건강을 좋게 하는 칼륨 등이 들어 있다. 소화를 촉진하고 위벽을 보호하는 뮤신도 풍부하다. 조림이나 전, 튀김, 피클 등 활용법이 다양하다. 토란에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돕고 부종을 완화한다. 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베타카로틴은 세포막을 강하게 하고, 암을 예방하며,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한의학에서는 원기회복이 필요할 때 마를 섭취하면 오장이 튼튼해져 기력이 좋아진다고 본다. 저열량·저지방 식품이므로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먹으면 좋다. 즙이나 조림, 구이, 부침, 죽 등에 활용한다.



**채소 영양소
제대로 섭취하는
조리법을 알아두자**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채소 속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 등 모든 영양소가 몸에 흡수될까? 조리법에 따라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기도 하고, 오히려 파괴되기도 한다. 채소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게 돕는 조리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토마토, 피망, 감자 등은 열을 가해도 영양소 손실이 적고, 오히려 흡수를 돕는다. 토마토는 기름에 볶으면 영양분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 특히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 성분을 잘 흡수하려면 지용성 비타민과 함께 섭취하자. 올리브오일에 마늘, 양파와 볶거나 고기 먹을 때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려 살짝 구워 먹는다. 설탕을 뿌려 먹는 건 비타민B가 없어지므로 좋지 않다. 대신 소금을 뿌려 칼륨과 균형을 맞추자. 피망은 과육이 두터워 열에 약한 비타민C 손실이 적어 안심해도 된다. 기름에 볶으면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카로틴 흡수도 도와준다. 감자는 뜻밖에도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인데, 감자의 비타민C는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단, 요리할 때 통째로 삶은 뒤 껍질을 벗겨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

양파와 양배추는 물을 조심하자. 양파 속 유화아릴은 피를 맑게 해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좋지만 수용성이라 물에 담가두면 빠져나간다. 물에 담글 때는 2~3분만 담갔다 빼고, 가열할 때도 단시간에 조리해야 한다. 양배추는 식감을 살리려고 물에 담가두는데, 비타민 C와 U가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10분 이상 담그지 않는다.

**그린스무디로
신선한
아침을 시작하자**

채소와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건 알지만, 많은 양을 한 번에 먹기는 부담스럽다. 하루에 그린스무디 한 잔을 마시자. 그린스무디는 푸른 잎 채소와 과일을 갈아 주스 형태로 만든 것이다. 입자가 거친 식이섬유를 잘라내 소화가 잘되고, 효소는 그대로 살아 있어 체내 흡수율이 높다. 그린스무디의 항산화 효과, 디톡스 효과, 변비 해소, 체질 개선 등의 효과가 보고되면서 미국,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관심받고 있다. 혹자는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라고 주장한다.

푸른 잎 채소의 색이 거부감이 들고 맛이 우려되면 처음에는 채소와 과일을 1:9 비율로 시작해 점차 채소 비율을 높여가자. 감자나 고구마 같이 전분이 높은 채소는 과일과 섞이면 소화를 방해하므로 잎채소 위주로 고른다. 재료는 신선한 계절 재료를 선택하자. 벌레 먹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은 유기농이나 자연산 재료를 고른다. 아무리 모양이 예쁘고 좋더라도 비료나 농약, 중금속에 오염된 것은 피해야 한다. 껍질도 함께 넣고 가는 게 좋다. 잎이나 줄기, 열매, 뿌리를 골고루 넣고, 설탕이나 인공감미료, 꿀 등은 첨가하지 않는다. 채소와 과일은 같이놓으면 곧바로 영양소 파괴가 시작되므로 만드는 즉시 마신다.





정보공개 아버지, 안데르스 쉬데니우스

250년 정보공개 전통, 세계를 바꾸다!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3.0 시대가 열렸다. 이제 공공정보의 공개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보공개 중요성을 250년 전에 인식하고, 사회에 정착시킨 인물이 있었다. 부패인식지수 톱클래스인 지금의 스웨덴을 만든 안데르스 쉬데니우스가 그 주인공이다.

250년 전 정보공개 원칙을 부르짖다

21세기 시대정신으로 등장한 '정보공개'는 이제 기업과 사회의 국가경쟁력의 척도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입법화한 나라는 스웨덴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스웨덴은 약 250년 전인 1766년에 정보공개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선 결정이었다. 스웨덴이 정보공개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북유럽에서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을 주도한 인물인 안데르스 쉬데니우스(Anders Chydenius) 덕분이었다. 사실 스웨덴은 정보가 철저히 통제되는 군주제 사회였다. 1720년 제국의회가 회의록과 문서의 외부공개와 유출을 철저히 금지시킨 것이다. 하지만 안데르스 쉬데니우스는 “자유로운 국가는 넓은 지적 기반이 있어야 하고, 이는 검열이 아닌 정보와 사상의 공표와 공개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정보공개 관련법을 적극 추진했다.



회 특위가 설치됐고, 다시 의결을 거쳐야만 했던 것이다. 쉬데니우스는 특위 멤버로서 활동하며 다른 의원들의 공격과 논쟁을 헤쳐 나가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과 조직을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은 공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법을 통과시켰고, 첫 정보공개법인 「출판언론자유법」 제정으로 독특한 스웨덴의 정보공개 전통이 세워졌다.

그러나 곧 「출판언론자유법」에 시련이 닥쳤다. 제정 이듬해인 1767년 정부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해졌고, 6년 뒤인 1772년엔 구스타프 3세가 쿠데타로 실각하면서 아예 폐지됐다. 1809년 다시 부활하며 새 헌법에 의해 기본법으로 간주되었지만 다시 1937년 독일이 스웨덴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기밀보호법」이 제정되어 정보공개가 크게 위축됐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47년과 78년 두 차례 개정되어 스웨덴은 최고의 정보공개법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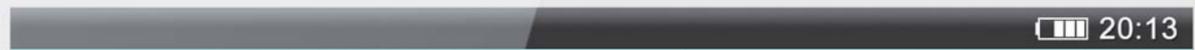
폐지, 축소, 제한 등 부침을 겪은 출판언론자유법

물론 제정 과정은 쉽지 않았다. 발의된 법을 심의하기 위해 제국의

최고의 정보공개법, 세계 70개국에 확산

현재 스웨덴은 헌법으로 정보공개와 청구권 등 정보자유권을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철저한 정보공개 방침은 사회민주당의 최초 여성 당수이자 부총리를 역임한 모나 살린을 낳아시킨 사건으로도 알 수 있다. 모나 살린은 공적인 카드를 이용해 30만원 어치의 생필품을 구입하고 자기 돈으로 카드대금을 메워 넣었다. 그리고 원칙에 따라 이를 신고했는데, 이것이 정보공개를 통해 이슈화되면서 결국 부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스웨덴의 앞선 정보공개 방식은 유럽연합(EU)과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5년 스웨덴이 EU에 가입한 이후 결국 유럽연합은 1999년 '정보자유 원칙에 대한 암스테르담 협약'을 체결했고 2001년에는 유럽연합 차원의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1996년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에서 13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했다. '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스웨덴의 정보공개 원칙은 현재 EU는 물론, 세계 70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 안전귀가 앱 가족의 안전한 귀가,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다.

<지금 바로 다운받아 사용해보세요!>
스마트 안전귀가 앱 다운로드



내 손 안의
안전 도우미,
스마트 안전귀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젊은 여성들의 경우 직장이나 학원 등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생길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밤길에 대한 공포를 떨쳐내기 어렵다. 또 복잡한 도심에서 낯선 길을 찾아가는 어르신들은 물론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도 불안하기 마련.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안전한 귀갓길을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수밖에. 이런 귀갓길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섰다. 바로 스마트폰으로 안전한 귀갓길을 돕는 '스마트 안전귀가' 앱을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는 것. 안행부는 지난 2011년 대전, 제주, 부산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안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2012년 11월부터는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스마트 안전귀가'로 명칭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안전귀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도우미 역할을 한다. 스마트폰에 이 앱을 설치하고 귀갓길에 실행해 놓으면 지정된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주기적으로 위치정보를 전송해준다. 카카오톡으로도 위치정보를 보낼 수 있고, 알람 간격도 최소 1분에서 최대 120분까지 조절이 가능해 편리하다.

서비스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알람이 발송되며, 정해진 시간 간격에 맞춰 알람이 계속 이어진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또 도착 알람이 전달되어 언제 이동해 언제 목적지에 도착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귀갓길 알람부터
긴급통화, 안전 구역
안내까지 한 번에!

주기적으로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것 외에도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경찰서, 소방서, 비상대피시설 등 안전 시설물을 분야별로 선택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또 미리 안전구역이나 위험구역 등을 설정해 두면 사용자가 그 지역에 들어갔을 경우 보호자에게 바로 알람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경찰서나 소방서, 지정 연락처로 긴급 통화도 가능하다.

아이들의 하교길 등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이동한다면 목적지와 시간 등을 예약해 두면 자동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특히 통신사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와 달리 별도 가입 절차가 필요 없고 위치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스마트폰 앱 하나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생기는 셈이다. '스마트 안전귀가' 앱은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다운로드 16만 건, 누적 이용건수 46만 건을 넘어서 공공기관 앱으로는 드문 인기를 누리며 2013년 대한민국 모바일 앱 어워드 공공서비스 대상을 수상했다.



News & People

2014. 1+2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식 개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시작을 알리는 사무식이 지난 1월 2일 오전 11시 서대문구 미군동 권익위 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권익위 전 간부와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사무식에서 이성보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부임해 정책을 펼친 첫 해로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감하고 다양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며 2013년의 활동을 평가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발

전시시키고,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발굴하는데 지혜와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3.0 실현을 위한 국민체감형 소통시스템 구축,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선도, 현장중심의 권익구제 강화, 꾸준한 정책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위원회 인지도 향상 등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성보 위원장은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기관인 만큼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4년 제1차 국민권익 자문회의 개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2014년 첫 국민권익 자문회의가 지난 1월 10일 권익위 청사 신관 9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권익위의 업무 발전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과 간부를 비롯해 송보경 위원, 박인례 위원, 김용직 위원, 김거성 위원, 신봉기 위원 등이 참석했다.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2014년 권익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되었다.

권익위 블로그 기자단 10기 발대식



국민의 입장에서 권익위의 정책을 재미있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제10기 「국민권익」 블로그 기자단이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 1월 17일 11시 권익위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40명의 10기 블로그 기자가 참석했으며, 이성보 위원장이 정식으로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을 독려했다. 블로그 기자단은 앞으로 1년 동안 권익위 정책에 대한 온라인 기사를 올려 네티즌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온라인 행정심판허브시스템 오픈



6개 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가 시작된다. 중앙, 서울, 부산, 제주, 경기도교육청, 서울지방교정청 등 7개 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 및 7개 행정심판위원회의 각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이들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청과 7개 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속된 업무 담당자들도 행정심판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편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사건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게 됐으며, 행정심판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비해 사업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5단계에 걸쳐 60여 개 행정심판기관에 대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년에는 경기도, 대구시, 광주시 등 15개 행정심판기관에 대해 2단계 구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위 - 경찰청 ‘공직비리·4대악근절’ MOU 체결



지난 1월 27일 권익위와 경찰청이 공직비리와 부패사건의 수사사례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 4대악 근절 등 국민생활 속 민생안전을 위한 국민체감형 제도개선 협업을 공동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갈수록 은밀화·지능화되는 공직비리와 부패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와 조사 또는 수사 전문인력을 상호 교류하기로 했으며, 4대악 근절 등 민생안전과 관련한 사회적 관행이나 규정, 낡은 제도 등을 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이성보 위원장, 신임법관 청렴특강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월 20일 서대문구 미군동 권익위 청사 대강당에서 신임판사들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201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신임판사 32명이 참석했으며, 이성보 위원장은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하며 선배 법조인으로서 후배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특강은 신임 판사들에게 권익위의 업무와 활동을 알리고 국민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Quiz

아래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초성퀴즈의 힌트는 책 속에 숨어 있습니다. 힌트 단어가 숨어있는 페이지를 찾아보고, 힌트단어의 앞 글자를 모아 초성퀴즈를 맞춰보세요!

ㄱ ㅊ ㅎ ㅂ

Hint

12P 작은 제목 'ㄱㅊㅅㅅ'

24P 제목 두 번째줄 'ㅊㅅㅎㅅ'

17P Case Information 세 번째 줄 'ㅎㅅㅅㅅ'

2P 제목 'ㅂㅅㅂㅅ'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의견과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중 다섯 분을 추첨해 전통시장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응모마감은 3월 7일(금)입니다.

지난호 정답

1. 청렴연수원 2. 동네번호사 조들호 3. 제주 동문시장

지난호 당첨자

박순구(경기도 군포시), 이춘성(서울 구로구), 송국화(전북 순창군), 김은영(부산시 사상구), 이태호(창원시 진해구)

Review

박순구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Q&A를 읽으니 국민권익위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의 사연과 민원이 접수되고 또 해결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는 국민들이 마음놓고 권익위에 물어볼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이춘성

서울 구로구 경인로

지난 달 구청에 갔다가 〈Weekly 공감〉이라는 책에서 110 콜센터의 사연을 읽었습니다. 〈국민권익〉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콜센터 팀장의 글을 읽으며 권익위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언제나 국민권익위원회를 응원합니다!

송국화

전북 순창군 순창읍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다보니, 〈국민권익〉을 읽고 나서야 국민권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정말 속 시원했습니다. 국민들의 세세한 고충까지 해결해 주는 것을 보고 감동했어요.

김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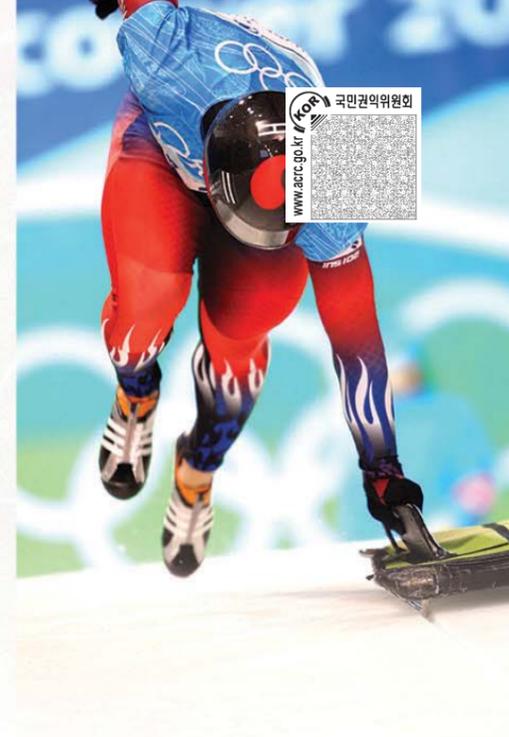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이동신문고 기사를 읽고 민심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가장 가까운 정부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시는 데 일익을 담당하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의 노고가 맺힌 결실로 나타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뿌듯합니다.

이태호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딸의 명예회복을 위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읽으며 부정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임신한 딸의 과로사라는 슬픈 현실을 듣고 정책변화까지 이끌어 낸 힘든 여정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시는 권익위,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치동계올림픽 파이팅!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 ◆ 대회기간 : 2014.2.7(금)~23(일) 17일간
- ◆ 개최종목 : 7종목, 98개 세부종목

